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9월 발행 (제 53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2' 예레미야

◎간증 '주님께 “길”을 묻다'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 2' by 예레미야

오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2"을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난번 우리는 종말의 날에서 "대 교회, 대 기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탱크와 비행기를 동반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기도의 성전인 교회의 토대와 교리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신앙적인 싸움임을 보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싶다고 생각합니다. 위 텍스트를 볼 때, 그 전쟁에 관련하여 "민족은 민족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 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것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직접적으로는 전 세계의 민족이 뒤섞여 싸우는 같은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유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것을 조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 봅시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민족 국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과 국가 간의 싸움, 즉 전쟁도 과거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으며 나라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고, 또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여러 번 전투,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에돔을 생각할 때, 사실 원래는 같은 가족에 속하는 두 형제부터 시작된 국가끼리입니다.

즉, 그 조상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있고,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에서 시작된 두 나라가 후에는 서로 전쟁을 하고 상대를 멸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말의 날에 있어서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종말의 날에서도 같은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사이에서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일에서는 이러한 형제간에 사랑과 평화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 종말의 시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교회 내에서 유지되었던 같은 믿음의 형제의 일치와 평화가 무너지고, 반대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리의 다름을 기반 싸움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의 상황을 가리켜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때, 상기 텍스트에 이은 다음의 말씀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보고 갑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 것 같"은 상기에 쓰인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 즉 기독교 교단과 교회 사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 분열, 싸움, 그것이야말로 진통 환난 시대의 원인이며, 그 "처음"입니다.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절에도 상기 텍스트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관계가 있으며, "민족은 민족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날" 갖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교단 사이의 다툼, 전쟁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박해 될 수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이 건에 관련하여 같은 장 3 절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24:3 ○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종말의 경고는 모든 기독교인에게보다는 약간 제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날에 괴로운 눈에 있고, 순교를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군중의 행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날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 사람들이 너희를 괴로운 데 만나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날 누가 우리를 "괴로운 눈에 만나게 죽이는" 일까요? 그 참고 자료로 주로 첫 오순절의 생각을 봅시다. 그날 그리스도를 잡아 괴로운 눈에 만나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없습니다. 반대로 동포이며 형제 인 유대인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도 동일하게 재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날에서 어제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형제 자매가 올바른 기독교인을 호소 죽음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의 분열 믿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 썼습니다 같이 그 종말의 날에 기도의 집으로 교회가 붕괴하고 그 기초석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무너지고, 또한 구주 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도 신앙도 교회에서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미워 또한 어디 까지나 그리스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십자가의 날 그리스도에 대한 군중의 증오, 감정의 고양어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 관해서 마가 평행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3:12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비록 이해로 형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부자는 믿음의 부자 관계로, 목사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날, 이 교회의 형제 자매 사이 목사 성도간에 교리의 차이에 따라 호소하거나 사형에 전달함이 발생할 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일까 요? 이 말을 그대로 취한다면,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전세계 사람들로 부터 미움 받는 날이 온다고 예언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다? 그런 날이 과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런 날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면 그날은 아쉽게도 확실하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내 상상은 그 날은 세계를 석권하는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 개인의 부정적인 캠페인 비방에서 일어나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역사 성, 신성을 의심하게 하는 책이나 논문 신학 "역사적 발견 '이 잇따라 의도적으로 발생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 세계에서 "예수는 실제로 기적 같은 가지마" "그는 현대의 사기꾼이었다"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 이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확정 한 사실" 등이라고 되므로 소. 그리고 급기야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사람들이 컬트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뒤집어 세계는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문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대응입니다. 슬프게도, 상상할 수 있는 그 날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는 전체적으로 열렬히 그리스도를 외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도 그것을 승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분명히 배교라고 쓰여져있는대로,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 위배 날, 불행히도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중 어디 까지나 그리스도에 충실하게 걷고 자하는 제자는 그 미혹 된 기독교인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 있습니다."라고 쓰여져있는대로입니다. 복음에 쓰여져있는 것은 첫 오순절 어제까지 그리스도를 믿었다 군중이 그 날에는 생각을 변화하고 분노에 찬 그리스도를 잡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입니다. 같은 재림의 날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무브먼트 나 소문든지, 풍조에 밀려 그리스도에 대해 열광적 인 증오심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정확하게 제자의 행보를 기독교인에 부어 그들이 미워하게되는 것입니다.

2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묘사입니다. 종말의 날의 미혹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대적 인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비틀 거릴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 말>

그런데 이날 관해서는 계시록 중에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6:9 ○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6: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6: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곳에서 쓰여져 있는 것은 보았던 마태복음 24 장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부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에게 큰 칼이 주어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만, 칼은 말씀과 교리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교리 논쟁 때문에 기독교 각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싸움의 결과 서로 고소하고 죽음에 이르게 같은 엄청난 결말이 될 수 비유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불 같이 붉은 말이 나왔다."

불은 영적인 것의 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각파의 싸움과 영혼이 관계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비유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이 내릴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2:49 ○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12: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12: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12:5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12:53 아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불 즉 성령이 내리면 세상 부흥에서 만만세이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됩니다 만, 이 부분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불이 내려와 성령이 내렸다 위해 다툼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지금부터 가족 다섯 명은 세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명에 대항하여 분할 같이"될 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과 성령의 분열, 다툼이 일어나는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려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악령의 기능도 귀신의 영에 미혹 된 사람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는 오순절 날입니다. 평소부터 요망되고 약속의 성령이 내려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오는가하면 그렇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탄생 한 후 이전 영, 미혹의 영에 이끌려 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반발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이 종말의 날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도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에 반발하는 영으로 인도 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송 소식, 소송 사건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이 고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디 까지나 그리스도를 옳다고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려고 하지 때문입니다.

6:9 ○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런데, 같은 장이 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세운 증거를 위해 살해당한 사람들의 영혼"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해 된 것으로, 상기 절 빨간 말에 대한 '지상에서 평화를 박탈이 허용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때문이었다 "고 묘사는 관계 것을 알아 봅시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 논쟁 신학 논쟁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미혹 된 기독교인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기적도 신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된 배교 기독교인 사이에 제자들이 충실하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계속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제자의 행보를 기독교인을 죽이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세상의 논리에 살아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땅 즉, 세상에 정착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여행자, 나그네였다 아브라함과 반대의 삶의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의 말씀보다 받아들이 기 쉬운 세상의 상식이든지 세상의 생각을 우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말한다면, 세상의 트렌드라든지 여론에 휩쓸려 성경에서 금지 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이

올바른 제자의 행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 그것이 전쟁의 일이고, 종말의 환난의 날임을 알아 봅시다.

6: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많을 수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제대로 말씀에 서려 뜻 사람들에서는 순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대로 알아 봅시다.

- 이상 -



복음으로 인해 체포되는 미국 기독교인

'주님께 "길"을 묻다' E3

2011 년 4 월호에서 "길"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드리고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은 그와 관련하여 더욱 하나님의 인도를 느낀 적이 있었으므로, 얘기하고 싶어 생각합니다.

이전 꿈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걷거라, 이 길 밖에 없도다"라고 말했다 주셨습니다. "길"은 "생명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후 "길"을 목표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쳐 지난해 예배 메시지 시편에서 공부를 통해 "길"을 걷기 위한 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 봅시다.

참조 시편 25:4~5

25: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25: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기도입니다. 밑줄 부분을 보시고 싶습니다 모두

"가르쳐주세요"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되어 있던 것은 다음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곳이나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않으면 모릅니다. 스스로 발견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길, 생명의 길 하나님 께 가르침 주지 않으면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알 수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 싶다면, 다윗을 모방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제대로기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목사가 알려져 것처럼, 스스로 찾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발견"이라는 것이 관련하여 기억 말씀이 있으므로 그것도 봅시다.

마태복음 7:14

7: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길은 좁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좁은 길"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탄하지 않고, 걷기 힘든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 "찾는 이가 드문"고합니다. "드물다"는 점은 KJV 역은 "few"(약간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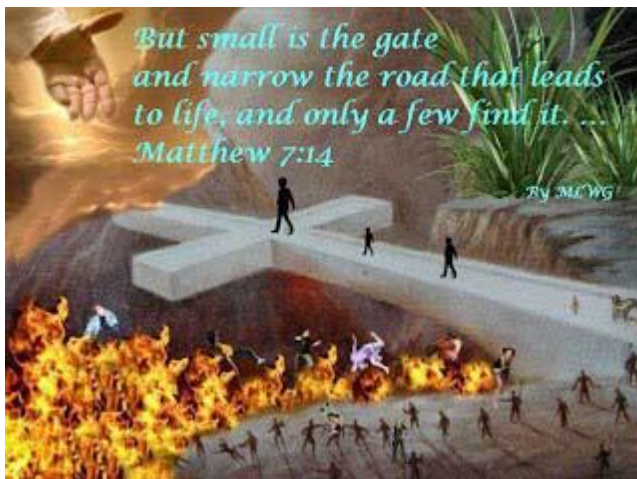
왜 "드문"또는 "약간"인가? 라고 하면, 한때 나도 그 사람 이었지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 드린다면 하나님께 묻지 앓을 것, 기도 앓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과 요한 계시록에 "귀있는자는 들으십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정말들을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 "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앓으면 모른다면, 우리가 들어 갈 수 밖에 앓는 것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요구하지 채 생애를 마치고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마터면 넣으면 생각했다 "천국"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기독교인이 앓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희귀"또는 "약간"이라고 말해지고 앓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좋지 앓습니다. "하늘 나라"정말 들어 싶다면 "드물다"또는 "약간"이 되어야 안됩니다. 게다가 절대 무리! 맏소사는 작성하지 앓아야요? 들으면 배울 수 앓으니까, 그대로 솔직하게 실천 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딘가 목적지를 목표로 하이킹을 하고 앓던 때 길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만약 그 부근에 정보를 찾으면 거기서 가는 방법을 듣고 앓지요? 그렇게 한다면 무사히 도착할 수 앓지요? 하지만 아도 앓닌 이렇게 라도 하지, 뭐라고 바람에 그냥 깊이 생각뿐,

거기에서 진행하지 않아요? 혹은 또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진행 되어도, 하마터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했다 조차 던가 결과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천국"으로 통하는 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이드 없이 목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정확한 방향을 보여 주시면서도 최종 목표 인 '천국'에 넣는 것입니다. 반대로 듣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다른 곳 (영원한 미워하거나 하데스 라든지 불못 이라는 곳)에 끌려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대로 하나님께 듣고 사문하거나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느꼈다면, 꼭 실천해보십시오. 이번에도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

- 이상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